

V.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P. E. Bach는 작곡가, 교육자로 후세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전고전주의의 대가로서 그의 음악은 Baroque의 음악을 바탕으로 좀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오르간 음악의 특징은 다양한 리듬, 강한 강약의 대조, 갑작스런 전조, 즉흥적인 성격의 Recitativ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Sonata 형식을 발전시켜 음악역사적 견지에서 Haydn과 Beethoven의 고전Sonata의 발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 작곡가로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J. S. Bach와 C. P. E. Bach의 서로 다른 음악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작곡가 모두 자신들의 깊은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했다는 면에서 기인한 것이다. C. P. E. Bach는 항상 새롭고 자연스런 음악을 향한 그의 업적으로 전고전주의의 대가로 일컬어진다.

참고문헌

1. Apel, Willi, Master of the Keyboard Music, Harvard Uni Press, 1965.
2. Burney, Charles, A General History of Music.
3. F. E. Kirby, A Short History of Keyboard Music, The Free Press, 1966.
4. Graut, Donald Jay, A History of Western Music, Norton & Co. Inc. 1973.
5. Marilou Kratzenstein, Survey of Organ Literature and Editions, Iowa State Uni Press, 1980.
6. Schweitzer, Albert, J. S. Bach, Dover, V. 1, 1966.

기독교 대학과 교수들의 과제*

Anthony Diekema**

우리가 성원으로 있는 사회와 우리가 종사하는 고등교육사회는 기독교대학과 기독교대학인들이 제공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될 진리의 제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특히 우리 교육제도에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펼쳐지고 있는 변화와 변동으로 말미암은 현기증에 시달리고 있다. 비록 가치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기업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걸쳐 제기되어 왔는데도 이 가치관과 교육의 양자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특별한 긴박감 속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고래로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가치관과 교육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유착되어 있음을 인식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탈가치적 교육을 상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대나 현대에 있어서 저명한 교사나 철학자로서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킨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할 자가 있는가).

오늘의 공교육은 가치(관)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위치에 전락되어 왔다. 일부 관대한 비평가들은 공교육에는 중핵가치구조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요, 그들은 이를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전적으로 허구인 것이다. 미국의 전 대법원장 와렌 버거는 기본적인 시민적 윤리규범에 필요한 가치관 조차도 전수치 못하는 공교육의 무능력에 대해 통렬히 규탄함으로써 미국교육에 대한 많은 비판적 관측자들의 비난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많은 경우 교사들이나 교육행정가들 중에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보다는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가 더욱 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의 공교육에는 일종의 규범적 공백, 즉 의도적인 불가치론이 팽배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학교나 교사들이 그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들이 무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무입장의 표현은 그 자체가 일종의 가치관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어쨌든 그들은 탈 가치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표방된 가치관은 허무주의적이요, 자기도피적이요, 무정부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탈 가치적인 교육환경은 사실인즉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성격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중요한 것으로 믿는 바이다. 왜냐하면 합리주

*이 글은 지난 3월 27일~28일 본 대학의 자매교인 미국 칼빈대학의 학장이 양교의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래방했을 때 본 대학에서 행한 강연의 원고를 번역(역자: 김용섭 교수)한 것이다.

**칼빈대학 학장, 철학 박사

의나 자연과학에 대한 소박한 해석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란 탈 가치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믿게끔 오도했기 때문이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수사(修辭)는 초가치적이라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상황을 의미하게 시리 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합리주의와 과학적 기업은 그 근거인 이들의 목적이 가치중심적이라는 것과 주관적 관심이 결여된 순수한 과학 탐구와 같은 것이라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아직은 분명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학적 도전이란 무작위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 과학탐구의 성과 역시 무작위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성이란 방법론의 한 요소인 바 이 객관성이 과학적 탐구의 목적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탐구의 목적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가치의식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대학의 미래는 이와 같은 가치중심적인 정신적 풍토가 보편화된 교육환경의 상황에서 펼쳐져야 할 것이다.

현대교육에는 기독교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질없는 기우가 아님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경향(상술한 바와 관련된)이 있다. 잠시 주변을 살펴 보면, 우리는 오늘의 고등교육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배우기 보다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있는 과정들이 문학이나 역사나 사회학이 아니라 회계학이나 공학이나 전산과학이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본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회계학, 공학, 전산과학을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들 과정 하나 하나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를 아는 일이고, 또 그것들을 탐구하되 효율적으로 탐구하는 일이며, 인간가치의 위상안에서 탐구하는 일이다. 본인은 고신대학은 이러한 바람직한 교육을 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그런데 상기 과정들이 전통적인 자유 교양과정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은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생산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상 특정 시점에 교육받은 시민으로부터 구체적인 기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의 고등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현대교육사조의 추세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교육과 학문의 목적에 집중됨을 밝히는 바이다.

기독교 자유교양교육

우리가 기독교 자유교양교육(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을 논할 때 여기에는 기독교적(Christian), 자유 교양(liberal arts)이라고 하는 형용사들을 통해 강한 단서가 이미 주어져 있다. 기독교 자유교양교육이란 “사람을 해방시켜 참된 인간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특이하고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a unique and free child of God)가 되게 하는 교육”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기독교 자유교양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자유를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이 자유는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되심과 하나님과 동류인간을 위한 봉사애 개인의 재능을 활용해야 할 책임을 깨닫는 그러한 자유이다. 따

라서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인 지성이요 자유이시며 영원한 행복과 성취를 가져다 주시는 무궁한 운명의 궁극적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성 고유의 권리를 소유함을 말한다.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의 맥락에서 볼 때, 탈 가치적, 기술지향적인 학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교육의 추세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비참한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해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다. 사실들이나 수치들, 자료 등 모든 물질세계는 거기에 가치가 없는 한 무의미하다. 중요함과 중요치 않음, 선함과 나쁨, 비쁨과 그릇됨 사이의 차이는 결국 가치(관)에 있는 것이다. 인간을 참으로 인간되게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90년대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의 미래는 어떠한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해답은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90년대에 기독교 자유교양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젊은이들을 해방하여 참된 인간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특이하고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의 통합적인 목적이 모색되어야만 하겠다. 이러한 목적 정립을 위해서는 기독교대학과 대학인으로서의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특징짓는 최소한의 어떠한 특질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본인은 간략하게 이들 본질적인 몇가지 특질들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독교대학(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s)은 다양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 명석하고 심도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사랑과 미움의 상충되는 역할, 전쟁과 평화, 진리와 오류, 확신과 회의, 이성과 신앙, 이량과 탐욕,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등이 포함되는 바 이들은 어제와 오늘 인류가 직면했고, 내일에도 정녕코 우리 모두에게 부딪쳐 오게 될 우리의 참된 관심거리 들중 몇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크리스찬의 생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의미중 상당한 부분이 바른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모색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의 중심기능이 지식을 전파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습득(사실 그 자체의 습득이든 사실에 관한 것의 습득이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단순한 방법들을 습득케 하는 과목들은-본래 우리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고유한 많은 기본적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중요한 문제들을 제기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과정들은 인간정신을 해방하지 않는다. 기독교대학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한가?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계시된 진리와 부합한 것인가를 검증해야 할 고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대학은 도덕적 판단의 기량을 조장치 않으면 안된다. 고등교육의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대학을 분리시켜 구별되

게 하는 것은 기독교신앙과 과학을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할 우리의 사명감과 도덕적 판단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이의가 이따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 어떠한 다른 장에서도 찾기 어려운 깊은 지적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기독교교육에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인간정신의 해방을 위한 철학적, 신학적인 논의야말로 기독교대학의 기본적 중요성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바이다. 인간정신의 해방을 위한 철학적, 신학적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인 것이다. 궁극적인 문제와 가치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정신의 양육에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고귀하고 성스러운 인생을 영위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양심과 확신으로 인도한다.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의 두번째 위대한 특질은, 논리적으로 볼 때, 상술한 첫번째 특질에서 연유한다. 즉, 명석하고 심도 있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검증과 비판으로, 그리고 평정과 평가어로 연결된다. 깊게 그리고 명석하게 사고하기를 익히는 학습은 엄정한 과학적 방법뿐 아니라 유대적, 기독교적 신앙(Judeo-Christian faith)의 엄격한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사실들만을 묘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실묘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을 형성하는 문화와 힘들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사회와 그 기능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증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교육적 노력이 목표보다는 방법에 의해 그리고 목적보다는 기술에 의해 좌우될 진데 사실에 대한 묘사의 방법의 습득이나 생을 형성하는 문화와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습득을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참된 학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치의식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나 기술자라 할지라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요, 뛰어난 법률가라도 법적 정의만을 추구하는 교묘한 법률조작자가 될 것이며, 명성있는 외과의사라 할지라도 환자에 대한 기계적 처치의 과정에서 인생과 인간성의 고귀함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오늘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인즉, 우리는 일에 대해 엄격한 평가나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독교자유교양교육과 이 교육이 전수해야 할 상술한 두 자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 개개인에게 실현키 어려운 특질인 존재와 목적의식(a sense of presence and purpose) -보다 낡은 표현이 없어 이 말을 쓴다-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이 존재의식과 목적의식은 우리가 인간으로 참되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특이함과 자유를 확신함에 극히 중요하다. 마음과 영혼의 평화는 생에 있어서의 개인의 결단이 의미가 있고, 그 결단이 그의 존재의미에 대한 부단한 자각의 구조-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간직된 목적의식의 틀-속에 맞아 들때에 비로서 찾아 오는 법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의뢰심과 신앙심과 의탁심,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진실함만이 생에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질이야말로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의 팽배한 사탄의 힘의 와중에서 봉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자질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성취되지 못하는 수월성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약과 좌절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인간의 실상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상황의 모호함에 매일 매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질인 것이다. 이 특질은 우리의 생이 우리 주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통합에 융합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통합은 명석한 사고의 소유자에게서 창출되고, 기독교적 시야와 문화적 수용력이 깊고, 도덕적, 윤리적 감각이 예민하게 연마되어 있고, 인간정신을 절망으로 부터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봉사를 위한 자질을 갖추기에 전전한 목적의식을 지닌 자에게서 창출되는 것이다.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이 성취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이 만약 본인이 위해서 제의한 과업만을 수행한다 할 때,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자유교양교육이 성취해야 할 것은 그 밖에는 없단 말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인이 믿기에는, 이에 대한 해답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여러 세기동안 자유교양교육이 고등교육 기업의 전 국면에서 그것이 차지했던 이전의 중심역할로 부터 전적으로 이탈해 왔다고 하는 사실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욱이 자유교양교육의 이러한 이탈은 기독교고등교육의 영역에도 민감하고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믿는 바이다. 폐일언하고, 본인은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경위를 한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위는 17세기로 부터 20세기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과학적 방법의 위력에 의한 자유교양교육의 침식(Bacon, 2b; Novum Organum, 1620)에서 그 자취를 추적할 수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이다.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경향은 August Comte (와 아울러 Ward, Hume, Mill과 그 밖의 학자들)의 실증주의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바, 이들의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은 (1) 과학적 방법(인문학적 방법이 아니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인식할 수 없다. (2) 과학만이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있다. (3) 종교, 예술, 인문학(고전) 연구에 의해 설사 그 무엇이 습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는 신화나 동화(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과학적 진리를 위해 세워진 평가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철학은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팽배하여 심지어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철학자들조차도 과학적방법에 순응하여 탈 가치적 학문의 증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하는 경지에 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다.

크리스찬 교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초까지의 기간에 사회학 전공 대학원생이었던 자신의 경험-사회학에 있어서 거의 급진적 경험론의 입장에 서있던 학도로서 닦쳐 오는 엄청난 영향하에서 겪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실증주의의 관점과 과학적 방법의 필사적 추구에 의해 매우 강한 영향을 받아온 인문,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믿는 바이다. 사실인즉, 본인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한 과학적 방법이 웨버적(해석주의적)인 입장(Weberian stance-interpretationist)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본인은 그와 같은 입장이 현대세계의 요구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요구에 대한 본인 자신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시인치 않으면 안된다.

본인이 보기에는 과학적 방법은 자연과학과 기술을 위해서는 훌륭한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변혁시켰고 우리에게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한 새롭고 감흥스러운 조망(眺望)을 제공해 왔고 또 계속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은 우리에게 탈 가치적인 세계의 망령을 제공했는 바 이세계는 바야흐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려는 찰나에 있고, 또한 소수의 부유한 자와 다수의 빈곤한 자, 소수의 교육받은 자와 다수의 문맹자, 소수의 배부른 자와 다수의 굶주린 자, 소수의 희망을 가진 자와 다수의 희망을 잃은 자 사이의 엄청난 단절로 거의 절망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과장된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능가하는 우선권을 별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자들의 수중에 커다란 힘을 안겨 주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여러 면에서 보아 기술적 폐허이다. 그 까닭은 과학, 기술과 과학적 방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들이 가치나 생의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보기에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종교적 차원의 신앙에 대한 소명을 안겨 줄뿐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들의 필수적인 가치내용의 재정립에 기여할 변화된 방법론의 필요에 대해 새롭게 강조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이러한 시사는 과학적 방법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와 실재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단순한 통로로서의 과학적 방법은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점증하는 도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이다. 우리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이요, 삶의 의미를 동경하고 죽음에 임하여 영원을 동경하는 지성을 갖춘 자유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교육의) 중심임을 새롭게 음미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분명히 어려운 과제이다. 여러분은 본인보다도 훨씬 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크리스찬 교수로서 기독교신앙과 우리 학문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를 회피하고 이에 저항하는 분명한 증표들을 감지할 것이다. 경험론적 관점과 해석주의적 관점을 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에 신중성과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고등교육에는 그 고유한 본질에 있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점증하는 강조에 분명히 적대하는 요소들이 있는 바 그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교육에 있어서의 학적, 지적 발달에 대해 팽배해 있는 강한 "경험론적 풍토"
2. 실증주의와 과학적 방법에 대해 계속하여 강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학원생과 젊은 대학인에 대한 "사회화"의 과정
3. 지배적인 경험론적 풍토속에서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전문인인 자신들의 가르침과 학문에 대한 동료교수 상호간의 평가
4. 통합노력이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보다도 잠재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집념을 쏟을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
5. 자체의 당장의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대학사회의 전통적인 보수적, 근시안적 입장

말할 필요도 없이, 상술한 우리의 과제는 극히 복잡하고 원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보인다. 이 과제는 자유교양교육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위해 중요함은 말할 것 없고 기독교대학이나 기독교 학문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결 론

만약 자유교양교육의 장래가 우리 시대의 이러한 가장 심각한 필요-인간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제공해 주며 우리 사회와 세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필요-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진데 이러한 목적(필요)을 성취함에 필요한 인간의 지도력은 오로지 궁극적 운명과 시간을 초월하는 비전과, 권력과 쾌락을 초월하는 이상주의를 소유하고 이를 자각하는 사람들로 부터만 솟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진데, 크리스찬 교수와 기독교대학이 지도자를 공급하기 위해 보다 온전하게 여건을 갖추는 것은 무슨 과제를 위해서인가?

본인은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어서리라고는 기대치 않는다. 대학세계의 엘리트들은 현재의 상황에 너무나 집착되어 여념이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에 실현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려는 비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새로운 미래에의 희망은 소수의 기독교대학과 이에 종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학들이야말로 지적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과 자신과 안전함과 능력과 용기와 비전을 지닌 그러한 대학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위협을 가져다 주었던 한 낯선 외래인이 행한 일에 관한 George Simmel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 낯선 외래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생활양식을 보임으로써 편리하지만 창의력이 없는, 암암리에 관행화된, 기존의 생활양식을 타파하는 위협과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대학세계는 이와 같은 낯선 사람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아마도 지각없는 행동방식과 과거 습성을 저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세계는 예언자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고신대학의 교수 제위야말로 이와 같은 예언자적 과업을 수행해 나아갈 지도력을 공급하리라 믿는 바,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만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는 특별한 사명으로서 오래전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온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관(Wholistic View)을 정립했다. 우리의 학문뿐 아니라 가르침에 요구되는 것은 삶 전체에 대한 기독교적 관이요,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바른 관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역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기는 강하며 이 동기는 신앙과 신뢰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둘째로, 기독교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대학(고신대학과 칼빈대학)은 양교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미 협의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우리 과업의 차원과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응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위치에 있다.

끝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개인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와 자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속에서 세계를 재창조할 목적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비전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은 90년대를 이끌고 갈 미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도전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지상명령에 자극력을 더 해 줄 때 (본인은 그러하리라 믿는다) 우리 기독교대학과 크리스찬 교수들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열린 지성을 위하여¹⁾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안토니 디이크마(Dr. Anthony J. Diekema)*

번역: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은 지성을 여는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사실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진부한 해답들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존의 해답들은 왕왕히 정신적 자물쇠(mental locks)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세계의 조류를 따라 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곧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오늘의 풍조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국 지성의 폐쇄

시카고 대학의 미국인 교수인 알란 블룸(Allan Bloom)은 최근에 미국교육의 통탄스런 현실에 대한 한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미국지성의 폐쇄(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인데, 이 책은 미국의 고등교육과 오늘날 복미의 여러 대학과 종합대학교에 등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교수는 미국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 혹은 독서량의 감소등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책을 대체시켜 버린 점을 통분히 여기고 “양서를 읽지 못함으로 상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신념을 강화시킨다”(p. 64)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학생들이 듣는 음악, 특히 록(Rock)음악에 대하여 통렬하고도 광범위한 분석을 하면서 철학자 블룸은 그것이 “야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주요 주제들은 “섹스, 증오와 저속한 것, 형제애에 대한 위선적인 언어”(p. 74) 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록음악이 “창의력을 파괴하고……교양교육의 본질인 예술과 사상에 대하여 사려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한다”(p. 79)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 미국 칼빈대학 학장

** 고신대학 신학과 부교수

1) 로마서 12장 1~11절에 기초함. 이 논문은 칼빈대학 학장인 디이크마 박사가 고신대학에서 행한(1990년 3월 27일) 강연, About Opening Minds를 번역한 것임.